

신장 재이식의 임상적 경험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 외과학교실²

황은아¹ · 진규복¹ · 한승엽¹ · 박성배¹ · 김현철¹ · 김형태² · 조원현²

Clinical Experience of Kidney Retransplantation

Eunah Hwang¹, Kyubok Jin¹, Seungyeup Han¹, Sungbae Park¹, Hyunchul Kim¹, Hyoungtae Kim², Wonhyun Cho²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¹, Surgery²,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목 적 : 신장이식은 말기신부전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이식신의 10년 생존율은 약 50%로 여전히 낮은 상태이며 일차 이식실패 후 재이식을 시행하는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재이식의 경우 일차 이식에 비해 신생존율이 낮다는 보고들이 있어 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재이식 생존율이 일차이식과 차이가 없다는 보고들도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계명대의 동산병원에서 재이식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들 환자의 임상적 특성 및 이식신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방 법 : 1982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계명대의 동산병원에서 신이식을 받은 환자 757명 중 재이식을 받은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이들 환자의 임상적 특성 및 이식신 생존율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재이식 당시의 임상적 특성 및 생존율을 일차 이식 당시와 비교하였다.

결 과 : 총 757명의 신이식 환자들 중 일차 및 이차 신이식 모두 동산병원에서 시행받은 환자는 45명 (5.9%)이었다. 재이식 환자의 평균 연령은 40.8 ± 11.3 세, 남녀비는 2.2:1, 뇌사자 신이식 23예 (51%)를 차지하였으며, 일차 신이식 실패로부터 재이식까지의 기간은 33.2 ± 168.9 (최단 0.2, 최장 169개월)였다. 재이식의 1년, 3년, 5년 및 10년 신생존율은 각각 95.6%, 93.0%, 93%, 80.6%였다. 이들 환자의 일차 이식 및 재이식의 임상적 특성을 서로 비교하였다. 재이식 시는 일차 이식에 비해 뇌사자 신이식 (51.1% vs. 8.9%, $p=0.000$), tacrolimus의 사용 (75.6% vs. 4.4%, $p=0.000$), mycophenolate mofetil (MMF)의 사용 (82.2% vs. 6.7%, $p=0.000$)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급성거부반응은 재이식시 유의하게 낮았다 (20% vs. 64.4%, $p=0.000$). 그러나 공여자 연령, 남녀비, 이식신 기능 지연 및 추적기간은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식신 생존율은 일차이식 5년 및 10년 생존율이 각각 64.4%, 13.3%에서, 재이식 5년 및 10년 생존율이 93.0%, 80.6%로 재이식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재이식 후 평균 61.5 ± 35.7 개월의 추적 기간동안 6예 (13.3%)에서 이식신 소실을 경험하였으며 원인으로는 급성거부반응, 일차성 이식신 기능 부전, 만성거부반응, 이식신 동맥 협착, 재발성 사구체 신염 및 약물 불순응이 각각 1예씩 있었다.

결 론 : 재이식 후 이식 생존율은 일차 이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재이식 또한 비교적 안정적인 신대체요법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가 비교적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일 기관연구이므로 성공적인 재이식과 관련된 인자 및 면역억제 요법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